

CORE COMPETENCE



R&D

바이오연구소

바이오 사업을 지원하는 바이오연구소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현재까지 식품첨가제인 핵산 (IMP, GMP), MSG와 사료첨가제인 라이신, 쓰레오닌, 트립토판을 세계 최고 수준의 원가로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아미노산, 핵산 부문에서는 고생산성 균주 및 신공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생물 오믹스기술 (Genomics, Proteomics, Metabolomics 등), 대사공학 (Metabolic Engineering), Biotransformation, Genome Breeding 등 첨단 생명공학 기술의 접목을 통해 친환경 소재, 천연 소재와 같은 다양한 미래지향적 바이오 제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박테리오파지를 활용한 친환경 항생제인 바이오텍터를 개발하여 2010년 3월 출시하였고 양계사료용 제 1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존의 화학적 공법이 아닌 자연친화적 미생물 발효 공법으로 생산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2014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앞선 바이오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제품의 원가절감뿐만 아니라, 신공정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신규 아미노산 개발, 천연 신소재 개발 및 친환경 소재 개발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중국 공장 신증설 등을 통해 Globalization을 가속화 해 나갈 것 입니다.

제약연구소

1984년 설립된 제약연구소는 100여 명의 우수한 연구 인력을 기반으로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전문의약품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래 슈도박신, 두창 백신과 같은 신약개발에 성공하였고, 이외에도 빈혈치료제 에포카인, 비만치료제 디아트라민과 같은 개량신약을 국내 최초로 상품화하였으며, 항생제 사이톱신, 고지혈증치료제 심바스타, 고혈압치료제 암로스타, 치매치료제 에이페질, 위궤양치료제 라베원, 항우울제 렉슬러 등 다수의 제네릭 신제품 또한 출시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cGMP 공장인 오송공장 완공으로 주요 생산시설을 통합하였으며, 신약개발을 위한 R&D 기반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연구 speed-up을 통한 대형제네릭 및 개량신약 pipeline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입니다.



R&D

사료축산연구소

사료축산연구소는 1987년 설립 이래 축산농가에는 고효율의 사료와 과학적인 사양기술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해외에 선진 축산기술 수출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해 왔습니다.

2009년에는 국내 최초 섬유소를 이용한 모돈의 임신/분만/포유 스트레스 감소 타겟 제품인 헬씨모돈라인, 완전혼합사료(TMR) 비중 증가로 낙농 배합사료 시장 감소에 대응한 국내 최초 대사단백질로서 라이신과 메치오닌을 적용한 고효율 사료인 뉴아미노텍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런칭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고객 건강을 위한 무항생제 사료를 확대하고, 송아지 연변, 설사 발생을 20% 이하로 낮춘 신개념 사료, 한우암소 1등급 출현율을 대폭 강화한 사료 및 향균파지 접목 산란율/생존율 향상한 사료를 출시하고 계란 맛과 향 인지도 향상하는 신기술을 적용한 계란을 출시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이러한 고효율 사료 개발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지출시하였으며 이러한 차별화된 제품들을 바탕으로 해외에서도 점유율 늘려갔습니다.

향후 바이오 사업 부문의 사료 첨가제 및 식품연구소의 조미기술 등 사내 협동 연구를 통해 CJ만의 Only-One 제품을 연구할 예정이며, 연구소의 Global 기능을 강화하고 Asia 국가들에게 선진화된 축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원료 라이브러리 및 제품 마스터 파일을 구축할 것입니다.

식품연구소

1978년에 설립된 식품연구소는 기초연구부터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Only One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새로운 식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총 200여 건에 이르는 특허를 출원하였고, 개별인정/기준규격 등 건강기능식품의 법적 권리를 국내 최다로 취득하는 등 그 기술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식품연구소는 최첨단 신기술을 개발하고 응용하는 연구조직, CJ만의 Only One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조직, 그리고 기존시장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제품을 개발/개선하는 연구개발 조직, 기능성 식품 신소재와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조직,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와 트렌드를 이해하고 새로운 컨셉과 디자인에 의한 포장재질, 포장방법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포장개발 조직을 두어 분야별 기술 개발과 전문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확장을 위해 중국R&D Post와 미국R&D Post를 두고 있습니다.

‘한부리’, ‘팻다운’, ‘햇반’, ‘행복한 콩 두부’, ‘맛밤’, ‘디팻 가르시니아’, ‘헛개컨디션’, ‘인델리’ 등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편의지향 식품, 건강지향 식품 및 기능성 식품을 차례로 출시하여 수많은 히트상품의 산실로 자리잡았습니다.

2012년에도 건강지향 식품 및 편의지향 식품을 개발하고 기능성 식품 및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여 상품화를 지속하며, 신살균 기술, 차세대 냉/해동 기술, CJ만의 건강기능성 물질 개발 등 기초 기술 개발을 통한 응용 제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식품안전센터

CJ제일제당은 1997년 국내 식품업계 중 최초로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부서인 식품안전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식품안전센터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CJ제일제당의 제품 출시부터 제조, 유통단계까지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식품안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제품 및 수출입제품의 미생물 및 이화학적인 안전성 검증, GMP(우수식품제조기준)감사시스템을 통한 협력회사 기술지도, 위해물질 등에 대해 국내 법규보다 더욱 엄격한 사내기준을 적용하는 등 선도적이며 다채로운 식품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식품회사에 준하는 시스템과 실행력 향상을 추구한 CJ Safety Management System을 완성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Safety Chain을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협력업체에 대한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2010년 OEM협력사까지 100% HACCP완료를 통해 식품안전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 검토하여 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며 식품의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신규 위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상시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안전활동은 국내에서만 아니라 해외 식품 및 원료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CJ제일제당 식품안전센터에서는 수입식품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 중국 청도에 중국식품안전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과 원료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기준규격이 나라마다 상이하거나 설정되지 않은 신규위해첨가물(멜라민, 사이클라메이트 등)에 대한 검증을 더욱 엄격하게 수행하는 등 중국산 먹을거리의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센터



인재 경영

유연성과 오픈마인드, 책임감 있는 CJ인재를 키웁니다.

CJ는 모든 구성원을 최고의 리더와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자하며 적극적인 보상정책을 채택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재를 확보하고 기르는 것은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은 구성원에게 경력비전을 제시하여 조직에 필요한 역량을 구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성장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를 개발해 기업의 성장에 기여해야 하며 개인의 자아실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CJ는 다양한 사업 부분에서 마켓리더가 되고, CJ의 임직원들은 전문성을 갖춘 업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J가 추구하는 인재는 유연함과 오픈마인드, 강한 책임감을 갖춘 사람입니다. CJ인재상은 인재 확보와 육성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며, 기업전략을 지원하는 제반 인사 시스템의 원칙과 기본을 만들어주는 근간이 됩니다. CJ는 이를 바탕으로 인사방침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CJ는 성과에 의한 보상을 기본으로 한 성과주의 문화를 이루어감으로써 직원들에게 일하고 싶은 회사, 일할만한 회사, 제일 좋은 회사가 되고, 임직원에게 성장의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여 직원 개개인의 성과 향상을 지원합니다. CJ는 모든 직원이 업무에 대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 업무 성과를 달성하게 하고,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통해 성취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CJ인

CJ가 추구하는 유연한 인재란 학습 등 자기개발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아를 성장시키려는 사람, 상황에 대한 이해와 분석, 예지 능력을 스스로 확대할 수 있는 사람,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주변의 제반 여건을 유리하게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픈마인드를 가진 CJ인

오픈마인드는 편협한 사고와 행동패턴을 극복하면서 다양성과 개연성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격의 없는 대인관계로 광범위한 상호협력을 이끌어 내며,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개인과 조직 전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감 있는 CJ인

책임감을 바탕으로 유연함과 오픈마인드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 조직에 대한 로열티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확고한 사람, 결과에 대해 스스로 공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과 개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이 곧 책임감 있는 인재입니다.



기업 문화

유연하면서도 강한 ‘강유(強柔)문화’ 를 확산시킵니다.

CJ는 유연하지만 강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기업문화를 조성, 발전시켜 왔습니다. 다른 기업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CJ 고유의 기업문화는 ‘성과를 창출하는 강유인재’, ‘경쟁에서 이기는 강유문화’ 로 대변됩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겸허한 자세로 핵심가치를 실천하는 강유인재, 그리고 오픈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창의와 유연함, 팀워크를 기반으로 조화로운 조직문화를 추구합니다.

이처럼 원칙과 자율이 내재된 유연한 기업문화와 경쟁과 도전을 강화한 강한 기업문화가 합쳐진 강유의 기업문화는 CJ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CJ인의 문화를 반영하는 철학은 바로 CJ ONLYONE 정신입니다. ONLYONE은 CJ의 경영원칙이자 경영철학으로서 CJ가 추구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서 ‘최초, 최고, 차별화’를 추구하여 핵심역량을 갖춘 1등이 된다’입니다. ONLYONE은 CJ만의 문화이자 CJ의 모습을 표현하는 고유한 단어로, 모든 임직원이 항상 마음속에 담고 꿈꾸며 지향하는 정신입니다. CJ인은 이러한 ONLYONE의 정신으로 경영, 조직, 개인 단위에서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

고객지원과 품질관리 및 고객의견 반영을 통한 만족도 제고

CJ제일제당은 고객의 불만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발생한 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고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클레임감소 및 성과를 통해 2008년도 소비자불만 자율관리시스템 (CCMS)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증 받았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교육을 시행하고 소비자단체를 지원하는 등 고객의 요구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당사제품으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고자 업계 최초로 신속방문단을 조직하여 3시간 이내 고객 클레임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도입 및 운영함으로 고객중심경영 Tool을 확립하였습니다.

2009년부터는 고객의소리(VOC)를 현업에 전달하여 고객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의 니즈를 제품에 반영할 수 있는 개선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제품출시 프로세스 정비를 통한 고객의 니즈를 제품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진에서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매월 생생VOC 운영을 통한 경영 인사이트를 전달하고, 전사 VOC 개선과제 활동으로 고객의 목소리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앞으로도 업계의 선도기업으로 고객안심지수 개발을 통하여 CJ제일제당 제품에 대해 실제 식품안전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 및 고객이 심리적으로 안심하는 항목을 추출, 지수화 하여 식품안전과 소비자 안심에 대해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고객관계 관리의 지속적인 강화

CJ제일제당은 매년 고객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도출하여 업무 프로세스에 고객니즈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SNS (Service Network System)를 통한 실시간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제품의 정보와 장점을 알리고 고객의 반응을 모니터링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기업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제품홍보프로세스를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는 CJ제일제당의 각 브랜드와 제품들이 고객에게 더욱 사랑 받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고객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고객체험활동(CEM)을 확대하는 한편 고객의 의견이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트위터등의 신 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OMS시스템 구축을 통해 온라인상 브랜드 정보 분석 및 소비자 인식 동향파악을 실행하고, 고객의견 반영을 통한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녹색소비문화를 위한 식 음료 최초 녹색경영체제 인증

CJ제일제당은 Only-One 정신을 바탕으로 CJ Way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Only-One 정신의 실현은 국내 식·음료 업계 최초로 녹색경영체제 정식인증을 한국인정원으로부터 받았으며(2011. 11. 14), 타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녹색경영체제 인증이란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1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사는 녹색경영체제와 ISO 14001, 녹색기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생산, 녹색소비문화의 확산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 주관으로 개최된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2010. 6월)에 참여하여 녹색구매 지침을 제정하고 녹색제품이 우선적으로 구매될수 있도록 사내 녹색구매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년에는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6차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햇반” 세계 최초 저탄소 제품 인증과 기후변화대응 활동

CJ제일제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에너지 사용량 감축활동은 물론 제품에서 배출하는 CO₂를 공개하고 감축하는 환경부의 탄소성적표지 시범 인증 사업에 참여한 이후, 2011년 10월 햇반 210g에 대해 세계 최초 저탄소 상품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햇반은 저탄소 인증제품중에서도 27.4%의 탄소배출량 저감으로 최대의 배출 저감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저탄소와 함께 탄소성적표지도 당, 분, 유 제품을 포함한 대표 제품 14종에 대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탄소공개프로젝트에는 2010년 이후 연속적으로 공개에 참여하여 온실가스목표관리제와 더불어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대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사업장별로 에너지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대외 수상을 한 바 있으며, 본사차원에서 에너지관리 및 녹색경영으로 소비자단체에서 수상하는 에너지 워너상,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시상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린패키징 및 친환경 포장 추진

CJ제일제당은 포장재를 통한 플라스틱 원료 절감을 추진하여 제품의 안전성은 유지되고 플라스틱 사용량은 감축하도록 포장재를 재설계 / 적용하였으며, 선물세트 트레이에 햇반 부산물인 쌀겨 및 무기질을 혼합하여 온실가스배출량이 감축된 포장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원순환형 포장 시범사업 관련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과와 MOU를 체결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 과대포장을 억제하고 포장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자원순환형 포장설계 기술 개발을 함께 진행하여 포장설계기준안을 제품 제조에서 판매까지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2011년 6월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에서 일반부문 대상을 수여받았고, 12월 환경부 후원 한국환경포장진흥원 주최의 그린패키징공모전에서도 대상 수상하였습니다.



건강, 교육, 문화를 지원하는 열린 사회공헌

CJ제일제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CJ나눔재단, CJ문화재단을 통하여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의 사회공헌 활동은 CJ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 인프라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외 계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 교육, 문화 세 가지 핵심 부문의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CJ제일제당의 사회공헌 활동은 ‘열린 나눔’을 지향합니다. 정부와 손잡고 사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푸드뱅크에서부터 기업, 개인, 수혜자가 함께하는 선택형 온라인 나눔터 도너스캠프,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까지 모두 개방형 구조를 가진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2008년 CJ나눔재단과 CJ문화재단은 사회공헌의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한 바 있습니다.

CJ나눔재단은 ‘2008이웃사랑 유공자 포상’에서 대통령상 표창을, ‘2008 사랑의 푸드뱅크’에서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여했으며, CJ문화재단은 한국메세나대상에서 문화공헌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음식으로 나누는 따뜻한 사랑, 푸드뱅크

푸드뱅크는 소외 이웃의 기본적인 필요 물품인 먹을거리를 지원하는 식품 나눔 사업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사회적 인프라를 창출해낸 첫 번째 사례인 푸드뱅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식품’이라는 선물을 통해 소외 이웃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식품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국내 최대 식품회사로서 결식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푸드뱅크 시행 초기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을 시작하면서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푸드뱅크의 효과성 검증, 지원체계 매뉴얼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푸드뱅크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에 참여하고 있는 임직원들

사회적 필요충족을 위한 재능 기부

CJ제일제당은 ‘햇반’을 만들어 온 기업만의 Only One적 기술을 기반으로, 수익성이 아닌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햇반 저단백밥’을 탄생시켰습니다. ‘햇반 저단백밥’은 단백질 대사에 필요한 효소 일부가 결핍되어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희귀질환자 200여 명만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 제품입니다. 총 8억 원의 개발비가 투자된 ‘햇반 저단백밥’이 출시되기 전까지, 200여 명의 희귀질환자들은 국내 기술력 부재와 수익성의 문제로 비싼 수입제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이 제품이 돈이나 물건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질환

유전자의 이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생화학적 대사결함이 있어 물질대사효소의 불능 또는 물질의 이상결합 등으로 유해물질이 축적되거나 필요한 물질이 결핍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 예로는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오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아미노산, 유기산, 탄수화물, 지방 및 지방산, 무기질 등의 대사이상 질환 등이 있습니다.

사회공헌

사회공헌

교육을 통한 희망 나눔, 도너스캠프

도너스캠프는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소외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너스캠프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방 분교 등의 선생님들이 도너스캠프 홈페이지(www.donorscamp.org)에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제안을 올리면 기부자가 직접 제안서를 선택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수혜자와 기부자가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열린 나눔문화를 구축한 새로운 나눔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CJ나눔재단은 기부자의 기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더해 2배로 현장에 지원하는 '매칭기부' 방식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너스캠프는 전국의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를 후원하고 있으며, 2012년 3월말 기준으로 기부금액이 9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도너스캠프는 기부금 지원 외에도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전문성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공부방 선생님들의 재교육, 재충전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교육 현장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도너스캠프